

기독교 인물 사상사전



이천 년 역사를 아우르는 기독교 사상의 진수

자신의 역사를 모르는 사회는 기억력을 상실한 사람과 같다. 그래서 역사, 특히 사상의 역사가 중요하다. 《기독교 인물·사상 사전》은 기독교 역사와 서구 문화를 형성해 온 백여 명의 사상가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저서, 문서, 선언, 신앙고백의 핵심적 내용을 소개한다. 주후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하여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이 책은 기독교 사상의 진수를 담고 있다.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고, 지적이면서 쉬운 책.” - 〈제3의 길〉(Third Way)

“매우 흥미로워서 빨리 읽게 되고 매우 명료해서 천천히 읽게 된다.” - 〈스트레이트〉(Strait)

토니 레인 Tony Lane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인문학 석사,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런던 신학교(London School of Theology : 이전의 London Bible College)의 역사신학 교수이자 연구 책임자로 있으며, 칼뱅과 칭화문에 특히 관심을 두고 있다.

장기려, 그 사람

오직 “주님만을 섬기다간 사람” 장기려

저자는 장기려의 글과 연설, 주변의 증언을 통해 인간 장기려를 있는 그대로 조명했다. - 동아일보
그는 기쁜 사람일 위해 헌신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죽을 때 물할 땅 한 평도 마련하지 않고 무소유를 실천했다. - 조선일보
저자는 장기려의 글과 연설, 주변의 증언을 통해 인간 장기려를 있는 그대로 조명했다. - 동아일보
장기려 박사님의 약정에 대해서는 별로 들어 본 바도 없고, 내 스스로 발견하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분을 '성자'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나는 충분히 장기려 박사로 성자와 부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 손봉호(전 동덕여대 총장)
장기려 선생은 나의 교육 철학의 모델입니다. 선생님은 항상 맨손으로 시작하지만, 얼마 안 가 조직적·창의적 노력과 결부되어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안병영(전 교육부총리)
그의 성경연구는 단순한 관념적인 사유에 의해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색과 실천을 통해 육화(肉化)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를 원하셨던 분입니다. -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지강유철 지음/A5산본형/576면/양장/20,000원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

홍성사.

홍성사.



弘盛社 Hong Sung Sa, Ltd.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7-9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 *이 소식지는 무가지료無料입니다.

2007년 3-4월 14호

종교소설의 백미, 엔도 슈사쿠의 침묵

편집자노트

책을 만들면서 많은 기쁨을 느끼지만 그중 가장 큰 기쁨은 내가 먼저 원고에 감동받아 내용을 다 읽고 웃음 입혀 독자들에게 선보일 때가 아닌가 싶다. 그런 의미에서 《침묵》과 함께한 날은 내게 큰 기쁨의 시간이었다. 내가 처음 침묵을 읽은 건 1993년, 그러니까 꼭 10년 전 일이다. 아무런 전이해 없이 잠이 든 책에 빨려 들어 한참이나 멍하니 앉아 “주어……”라고 되뇌었던 기억이 있다. 뭐라 말할 수 없는 답답함과 함께 그동안의 나의 편협한 생각에 무릎을 꿇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죽음을 맞이했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았다. 아울러 신사에 참배한 뒤 마음 졸이며 죄책감에 시달렸을 또 다른 신앙인들도 생각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당신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난당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군요, 죽음 앞에 겁을 먹고 신사에 머리를 조아리던 사람들과도 함께 계셨군요.” 그리고 10년 후, 다시 침묵을 읽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며 고난의 시간을 말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하심을 듣고도 용기가 없어 애써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푸소서”라고. “하나님, 왜 침묵하고요만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라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해 아파하는 사람들과 이 책을 함께 읽고 싶다. 그리고 각자가 느낀 하나님의 모습을 같이 그려 보고 싶다.

가상인터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 지시는 분입니다.”

《침묵》은 선생님의 ‘최대 야심작’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침묵》을 쓰게 되신 동기는?

제가 1960년 말에서 1962년 여름까지 꽤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했는데, 투병 중에 나가사키에서 성화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도 시대에 그리스도교를 금하고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학부가 고안해 낸 것으로서 성모 마리아상이나 예수 십자가상 등을 동판이나 목판에 새겨 발로 밟게 했지요. 제가 본 성화관에도 거무스름한 발자국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대.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성화관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제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후 1965년 1월부터 침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에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그리스도교가 전래된 것은 1549년 8월, 자비에르를 비롯한 여섯 명의 신부가 가고시마에 도착하면서입니다. 그 후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1590년대에 이르러서는 무려 전체 인구의 1.3퍼센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히데요시 시대의 봉건 정책과 맞물려 기독교 박해가 심화되었고, 1614년에는 그리스도교

대박해령이 전국적으로 선포되어 외국인 선교사 400여 명이 마카오와 마닐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영주들의 학정과 그리스도교 박해의 결과로 대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시마바라 난(島原の亂)’입니다. 시마바라 난 이후 해국령이 내려져 네덜란드인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을 금하고 1641년에는 네덜란드인까지 나가사키 데지마로 이주시켜 막부의 감시를 받게 했는데, 《침묵》은 시마바라 난 전야 이후인 1637년부터 1644년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실이 어디까지가 창작인가요?

이 작품은 역사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다루고 있는 사건도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로드리고는 요세베 켈라라는 실존인물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로드리고의 일본 이름 오카다 산에몬(岡田三右衛門)은 요세베 켈라의 일본 이름 오카모토 산에몬(岡本三右衛門)에서 따 왔지요. 요세베 켈라는 이노우에 지쿠노고가미의 고공과 ‘구멍 매달기’ 형벌을 받고 파교한 다음, 일본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노우에가 살던 저택에서 생활하다가 1685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나가사키 데지마(出島)’ 네덜란드 상사원 요나센의 일기’도 역사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어디까지나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켈라를 포함한 세 명의 선교사가 일본에 잡알하여 모두 배교했지만, 작품 중에는 한 명의 선교사는 잡입하지 못하고 다른 한 명은 순교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비잔티움 배신자들 등장인물로 한 작품이 많은데요,

상정이 그렇듯이 제 작품에도 비잔티움, 겹쟁이, 배신자로 그려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습니대. 예수를 받아 버린 유다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배신자였습니다. 《침묵》에 나오는 기지치로가 그랬고, 결국 로드리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존재의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 아닐까요.

《기의 모든 작품에서 종교적 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지면추천

“침묵의 현실……종교되지 않은 대답”

신앙이 있다는 것은 지극한 행복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있다는 것은 처절한 고통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처절한 고통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 신앙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분의 고통이 그토록 처절한 것은 육체적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서는 그 고통의 내면을 외마디 절규로 토해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겪은 고통이 간단히 힘든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수난을 당하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이 침묵입니다. 못 본 체합니다. 왜 나를 버렸느냐는 외침은 하나님의 이 침묵에 저항하는 절규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육신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힘을 주신 그 하나님, 하늘문을 열고서 이는 내 사랑하는 이들 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바 아버지였던 그 기쁘고 다양한 하나님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버리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에게만은 참전한 절망을 뜻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신앙인은 어떻게든 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엔도 슈사쿠는 《침묵》에서 이 절망적인 물음의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침묵》은 소설이긴 하지만 실제 상황과 인물이 기인 강한 역사적 현실성을 가지고 이 물음을 절실하게 그려 냅니다. 일본 천주교 신교 초기, 박해가 극심하던 그 시기에 예수회의 침입은 젊은 신부 셋이 신앙에 불타 몰래 일본 땅으로 침입합니다. 신부들은 다 체포되었고, 주인공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를 강요받습니대. 로드리고와 함께 잡힌 신도들은 그리스도의 성화를 받으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죽어 갑니다. 배교를 거부한 예수회의 새이기는 목이 절립니다. 그의 고통은 피가 “물줄기처럼 한없이 흘러나 있습니다. 신부는 전율합니다. 그러나 그를 더 못 견디게 만드는 것은 하

생각하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탐구해 가며 인간 영혼과 육신의 싸움과 갈등을 주제로 작품을 써 왔습니대. 제가 고백하는 예수는 ‘동반자 예수’입니다. 율법이나 교리에 갇혀 있는 예수, 신앙공동체나 맞은 예수가 아닌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고난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짓는’ 그런 예수지요. 그러므로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깨닫고 싶어하는 명지나 세리나 창녀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 주시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 지시는 분이 아닙니까?

참고 자료: 황필로, 《엔도 슈사쿠의 종교소설 읽기》, 신아출판사, 2002; 민세민,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나타난 ‘고통’과 ‘구원’”,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6; 김희자,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있어서의 신과 인간의 문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

이현주(현정, LIS4@hsbooks.com)/2003년 2월호 *영희로 여서

나를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너무나 평온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는 안들에는 여전히 어떤 햇빛만이 용서 없이 내리쬐고 있다. ……이끼와 미친기지로 메미가 풀기 없는 소리를 내면서 계속 울고 있다. 바람은 잠잠하다. 파리 한 마리가 여전히 날개 소리를 내며 자신의 열 줄 무릎을 들고 있다. 겉으로는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한 인간이 죽었다는 사실로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별이라, 별이기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은 이들의 죽을 앞에서 침묵합니다. 신자들이 거룩히 번제기처럼 떨어져 바다에 떠밀려 죽어 갈 때도 하늘은 잠잠하고 바다는 고요합니다. 신부는 절규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뻐히 재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기도와 구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결국 신부는 배교하게 됩니다. 자기의 고통 때문입니다. 교황한 관리들은 신부가 배교할 때까지 신도들을 죽이고 고문합니다. 자기의 신앙은 몸이 부서져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버리고 살아온 믿음의 사람에게만은 참전한 절망을 뜻합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신앙인은 어떻게든 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이현주(현정, LIS4@hsbooks.com)/2003년 2월호 *영희로 여서



소설 읽기

하루는 그 소녀가 끈이 달린 잉크병을 달랑달랑 들고 가고 있었다. 뒤에서 가만 보니 빨간 잉크병이었다. 끈이 그 잉크병 목에 묶여 있고 끈 끝에는 동그란 쇠고리가 있어 그 고리 속에 손가락을 끼워 들고 가고 있었다. 교장 선생이 책상 위에 두기 위해 잉크병을 들고 오도록 심부름을 시킨 모양이었다. 그런데 얼마 가다 그만 고리에서 손가락이 빠지면서 잉크병이 길가의 개울로 떨어지 버렸다. 소녀는 우뚝 멈춰 서서 어찌할 줄을 몰랐다. 내가 개울로 밀려 뛰어나래가 말없이 그 잉크병을 집어 주었다. 소녀는 그 큰 눈만 빼놓고 온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더니 다시 고리에 손가락을 꼭 끼워 넣고는 잉크병을 달랑달랑 들고 갔다. 나는 그 뒤를 여전히 따라가면서 잉크병이 다시 떨어지기를 바랐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4학년 말쯤 아버지는 부산 시내 쪽에 있는 봉래국민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나도 곧 뒤따라 전학을 하였다. 흠 있다 우리집도 봉래국민학교가 있는 영주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봉래국민학교에도 그 교장 선생의 딸과 같은 소녀가 하나 있었다. 눈이 얼마나 크고 예쁜지 멀리서 보아도 그 소녀는 금방 눈에 드러나 보였다. 그 소녀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은 5학년 초였다. 그때 그 소녀는 친구들과 어울려 운동장에서 고무줄넘기를 열심히 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방구늘이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달아나다 그 소녀와 그만 부딪치고 말았다. 소녀는 화난 표정으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화난 얼굴과 눈이 그렇게 예쁠 수 없었다. 나는 이토록 예쁜 소녀가 이 학교에 있는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 나는 늘 학교에 가면 그 소녀를 찾게 되었다. 소녀가 놀고 있는 군방을 뛰어다니며 그 소녀의 눈에 띄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그 소녀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자주 아버지와 나란히 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그 소녀가 학교 선생님이 나의 아버지를 보고 공손히 절을 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그때에도 아버지 곁에 서 있는 나에게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러면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은근히 시기심이 났다. 6학년이 되었을 때 그 소녀는 여학생 반의 반장이 되고 나는 남학생 반의 반장이 되었다. 봉래국민학교는 한 학년에 열 개 기량의 학급이 있을 정도로 제법 큰 편이었다. 그 열방 기량의 반장 중에 그 소녀와 나도 끼여 어린이회 모임 같은 데 함께 참석하기도 하였지만, 그 소녀와 아이기를 나눌 기회는 한 번도 가지지 못했다. 10월이 되어 부산 시내 전 국민학교 대표들이 모여 대진동 쪽에 있는 토성국민학교에서 한글날 백일장 대회를 가지게 되었다. 봉래국민학교 대표로서는 그 소녀와 나를 비롯하여 대대섯 명이 참가하였다. 그때 문예반 선생님 한 분과 대표들이 시작 택시 한 대를 대절해서 타고 토성국민학교로 갔다. 그 소녀와 다른 여학생들은 자리에 앉고, 나와 또 다른 남학생은 좌석 사이의 빈 자리에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서서 가게 되었다. 얼마 가다 택시 운전사가, 승객이 있으니 남작하게 주지않으라고 다급하게 계책을 하였다. 나는 엄걸걸에 주저앉았다. 그런데 바로 그 소녀의 양무릎 위에 앉게 되었다. 여학생들이 쿵쿵 웃음을 터뜨렸다. -계속

야체의 밤

- 제 1 부 감대바다 지편 상 - 조성기 장편소설



입고완료 入庫完了

레포트 비하인드 Left Behind 4-영혼 추수

서서히 시작되는 영혼의 대추수 '남겨진 사람들'은 과연 누구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축산, 비로 들든 말든, 거대한 대지인 지구 도 한 번 야수라잡이 된다. 전 세계를 뒤덮은 화염과 불길 속에서 절망의 불구덩이 내려지고..... 불꽃이 흩날린 '환난 근대'는 과연 살아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뱌레르! 다 왔어요! 다음 편 언제 나오죠?"
기승이 떨어지고, 공황에 휩싸인다. "40여 쪽밖에 ezra74 님
"흠, 비록 논쟁거리이긴 했지만 이렇게 멋진 책에서
상책으로 전개해나가지 그저 놀라만 합니다." -40여 쪽밖에 everck 님
"종말론 상책과도 변함 없이 읽은 훌륭한 문장들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름 만에 우~욱 읽어 버렸습니다." -곳비레를 감동한 님
"소설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레프트 비하인드>가 출간되길 기다리며 일주일이도 못 바티 사정에 내는 데 모습에, 나조차도 신랄해 버렸다. -40여 쪽밖에 worky 님
팁 리뷰어! 제리 <레프트 비하인드> 지음/CR연구소 지음/A5신변형/10,000원
*<레프트 비하인드> 시리즈는 영혼 제약을 뚫은 통령사에서 계속 출간됩니다.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 Till We Have Faces
다시 쓰는 신화

루이스 자신이 최고의 작품으로 꼽은 바로 그 소설!

'뒤비퍼와 프시케 신화'를 기초로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해석한 이 이야기는, 창세장과 신약의 본질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온전히 탐색하도록 인도하는 매력적인서사로 통찰력 빛나는 신화 소설이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재해석해 보고 싶은 심정은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부터 시작되어,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다. 그렇게 지면 살아있는 내내 이 책을 써 왔다고도 할 수 있다." -C. S. 루이스

"주어, 이제는 당신이 왜 대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당신 자신이 대담하다. 모든 질문은 당신의 얼굴 앞에서 사라지 버린다. 다른 무슨 대담을 들은들 만족하겠습니까? 다 말, 말만 있다. 다른 말들과 싸우기 위해 끝내는 말, 오랫동안 저는 당신을 미워했고, 오랫동안 당신을 두려워했습니다." -본문에서
C. S. 루이스 지음/강유나 옮김/민음의 글들 240/A5신변형/368면/양장/16,000원
*C.S. 루이스의 신약 도서 한국어본은 홍성사가 국내 유일의 정식 저작권 계약을 맺고 '영혼 C.S. 루이스 클래식' 시리즈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장기려, 그 사람

오직 '추님만을 섬기다 간 사람'

평생을 무소유와 불사로 일관한 장기려의 인생 재검은 그 전체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한겨레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때 팔릴 땅 한 모퉁도 마련하지 않고 무소유를 실천했다. -조선일보
저자는 장기려의 글과 연설, 주변인 증언을 통해 인간 장기려를 있는 그대로 조명했다. -동아일보

지강유철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및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직 역임, 월간 <민족과 사상> 객원 인터뷰어와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으로 활동, 주요 저서 <요한의 회상>(홍성사), <언더 토크 미나리>(비룡어)이 있음.
지강유철 지음/A5신변형/576면/양장/20,000원

제작진행 製作進行

영성과 삶

모리스 암연수 목사가 전하는 '참다운 영성의 길'

영성, 영성, 영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발견해 가는 공동체이자 별들이 있는 각 사람들을 영적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영성 공동체인 모세교의 대표 암연수 목사의 영성 탐구지. 날로 황폐해져 가는 세상에서 현대인을 간섭할 하는 문명적, 자기 상실, 인생의 의미와 목적 상실, 자기 소외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영성'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영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삶에서 참된 영성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궁극하는 이들에게 영성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준다.

영성생활은 영성만이 있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까지 계속되는 영성생활이다. 그 과정에는 우물, 사일, 낙심, 실패와 같은 요인들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재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이 요인들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요해진다. 한 번은, 영성생활의 주제는 내가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에서 무릎까지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 계속 읽으십시오. -본문에서

암연수 평화교회, 남대문로, 영락교회, 주님의교회 담임목사를 거쳐, 현재 영성 공동체 모세교의 대표로 있다. 저서로는 <구주 동안 배우는 사도신학 책>, <영을 통한 배우는 주기도문 책>이 있음이 있다. 암연수 지음/B5변형/230면 내외/34쪽 출간 예정
책임편집: 김해수 khs@hsbooks.com

굿간원리 크리스찬의 부지 원리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돈을 잘 다스리는 원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은 중화되지 않아!'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하루 대부분을 돈 버는 일에 사용하며 나머지 시간에도 돈을 어떻게 쓸지, 돈이 어떻게 써야 하는지 계산하는 일에 소비한다. 또 관적인 장이 들어야 할 시간에도 돈을 뒤적이면서 돈 걱정을 한다. 돈은 원치 않는다는 사람들이 돈 생각하는 일에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 저자는 바르게 부자 되는 것이 비장정까지 감동을 경험하며 자신이 깨닫고 실천하여 부자가 된 '갓간 원리'를 소개해 준다. 저자는 이 '갓간 원리'가 교회와 개교회와 가정과 사회, 심지어 정부까지 혁신하는 눈높은 재정정책을 창출하는 성경적 지혜라고 확신한다.

엘 전돌 Al Jandi 목사를 위한 목회서, 21세기 바리새로 널리 알려진 인물, 기독교 사회봉사 센터를 운영하는 Living Stones Church) 담임.
벤 크로치 Van Crouch 벤 크로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컨설팅 회사의 창업자요, 유능하고 유명한 역사가.
엘 전돌 벤 크로치 지음/강성경 옮김/A5신변형/224면 내외/34쪽 출간 예정
책임편집: 한영진 myhan@hsbooks.com

기독교 인물·사상 사전 Christian Thought

책처럼 읽고, 사전처럼 찾는 한 권의 신학

우리가 과거의 인물들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 책은 기독교 역사와 시구 문화를 형성해 온 백여 명의 사상가들의 삶과 그들이 남긴 저서, 문헌, 선언, 신앙고백의 핵심 내용을 소개한다. 모든 사대를 뛰어넘는 포괄적인 기독교 사상을 아우르며, 가장 큰 영향력과 소개할 만한 비중을 가진 인물들이 선택되었다. 주후 1세기부터 20세기까지, 팔레스트라나에서 시작하여 유럽을 거쳐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시대와 공간을 아우르는 기독교 사상의 전수를 담은 책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요일 2천 년 기독교의 맥을, 사전처럼 찾으면 기독교 핵심 개념을 알게 된다.

"매우 흥미로워서 빨리 읽게 되고, 매우 명료해서 천천히 읽게 된다." -<스트레이트>(Strain)

토니 레인 Tony Lane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인문학 석사,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런던 신학교(London School of Theology : 이전의 London Bible College)의 역사신학 교수이자 연구 책임자로 있다. 폭넓은 교회 개념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그의 능력이 본사 <기독교 인물·사상 사전>에 잘 나타나 있다.

토니 레인 지음/비룡어·양정호 옮김/A5신변형/488면/양장/18,000원

본회퍼의 시편 이해 Die Psalmen, Das Gebetbuch der Bibel
성경 속의 기도책

시편으로 기도를 배운다?!

시편과 주기도문, 다윗과 예수를 관통하는 기도의 지평! 말로 같은 신학이 아니라 온몸으로 신앙을 웅변한 젊은 신학자 본회퍼. 그가 이야기하는 시편의 세계는 감정의 위로를 내어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소용하는 거대한 학습장이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감정을 측정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지만, 시편의 기도를 따라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본문에서

디트리히 본회퍼 Dietrich Bonhoeffer 독일 브레슬라우에서 출생. 베를린 대학 신학부에서 교수 직위를 취득했다. 히틀러 정권 전복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인 저항운동을 벌이다가 1943년 나치 정부에 체포되었다. 1945년, 플로스렌부르크로 이송되어 교수형을 당했다. <윤리학>, <죽은자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남겼다.

디트리히 본회퍼 지음/최진경 옮김/강성경 옮김 241/B6변형/112면/양장/7,000원

구상문학총서 시와 삶의 노트

삶의 모든 영역을 향해 열려 있는 시적 통찰의 기록!

'오랑 필하사건'을 비롯, 시를 매개로 한 다양한 경험과 단상을 통해 시인 구상의 신비한 창작 여정을 엿볼 수 있는 예제시 선집.

'삶을 가장 풍부하게 산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시간의 내용이 꼭 있어야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저항할 줄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심하게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의 의식 속에 거의 자리를 남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삶의 흐름이 너무 순탄한 것보다 다의 저항감을 필요로 한다.' -본문에서

구상 문학 1949년 서울 이화대에서 출생. 본명은 구상준(具相準). 1941년 일본 니혼 대학(日大) 신문부 종교과 졸업, 1946년 원산에서 시집 <창(創)> 발행하면서 출간한 후 연문인으로 활동하면서 시와 사회평론을 썼다. 2004년 5월 11일 오전, 급관 문화충치이 추사되었다.
구상 지음/A5신변형/384면/양장/18,000원

사회책임투자, 세계적혁명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사회책임투자'의 거목 러셀 스텍스의 성경적 투자 이론서!

사회책임투자란 투자 종목을 고를 때 재무성과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에 대한 공헌을 비롯한 해당 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비록 비용 고려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방식이다. 알려고 하는 창시자인 러셀의 사상을 근거로 한 '사회책임투자'는 돈도 벌고 좋은 세상도 만들 수 있는 가치 있는 투의로 알려져 있다.

러셀 스텍스 Russell Sparkes 80년 초 윌리엄 본에 투신한 뒤 사회책임투자에 대한 체계적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1994년부터 영국 중앙금융위원회(Central Finance Board)를 위해 CEO로 왔으며, 영국 사회책임투자 포럼(The UK Social Investment Forum) 비자금 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는 영국 사회교회 중앙재무위원회 부회장(Director) 겸 윤리투자전문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다.

러셀 스텍스 지음/강성경 옮김/크로치 옮김/600면 내외
책임편집: 이현주 LJJ@hsbooks.com

쉽게 읽는 삼위일체 신학과 영성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사람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통찰적인 이해와 경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머리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그냥 덮어 둘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이 책은 어떤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돕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특히 삼위일체론 자체가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고안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눈높이를 맞추어 서술했습니다. -비룡어에서

정성욱 세계 복음주의 신학회의 주역하는 소장 신학자로서 미국 하버드 대학 신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영국 옥스포드 대학 신학원에서 알리스타 맥그래스 교수 지도하에 조직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대학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정성욱 지음/A5신변형/240면 내외
책임편집: 이현주 LJJ@hsbooks.com

한국 교회 개척과 독립운동으로 순국한 배설이가 이야기

이 소설은 19세기 원년, 곧 1801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여 년에 걸친 시간의 환경을 바탕에 깔고 출판된다. 조선조의 충주 관찰사 배수우, 오늘날의 김해교회를 세운 배성두, '대한광복회'의 일원으로서 3·1 만세운동의 주동자로서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한 배동식 열사! 이 책은 치열한 배설이가 삶이 소설적 기록으로 생생한 실화소설이다. 박경숙 지음/민음의 글들 242/A5신변형/408면/12,000원

야체집 예배당

3월 출간 예정

봄을 맞는 준비, 시편시편시편

영진 피터슨의 시편

시편으로 드리는 매일기도

C.S. 루이스의 시편

본회퍼의 시편

시편이해

성경 속의 기도책

디트리히 본회퍼 지음/최진경 옮김/민음의 글들 241/B6변형/112면/양장/7,000원

C.S. 루이스 지음/이종대 옮김/민음의 글들 218/A5신변형/200면/양장/9,800원

C.S. 루이스 지음/강유나 옮김/민음의 글들 240/A5신변형/368면/양장/16,000원

영진 피터슨 지음/이철민 옮김/민음의 글들 175/B6변형/384면/8,800원